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양돈규¹ · 임영식²

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²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부모, 교사, 친구)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에 따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1,135명(분석대상은 1,087)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정도, 비행행동 및 우울수준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중다회귀분석, t 검증 및 Pearson 상관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중요도는 교사, 부모, 친구의 순이었지만, 우울의 경우 부모, 교사,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은 교사, 부모, 친구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기에는 교사, 친구,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의 경우,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기에는 부모, 친구,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혼동과 불안정의 시기로서 어느 정도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문제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정상적인 발달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반항이나 혼란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최근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추세는 양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

서는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및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심웅철, 1992).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특히 학문적인 노력과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문제행동의 발생원인이나 문제행동의 억제 및 감소 요인과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요인이나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예를 들어, Cohen & Hoberman, 1983; Dubow & Tisak, 1989; Varni, Rubenfeld, Talbot,

& Setoguchi, 1989 등).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Dubow & Tisak, 1989). 또한 사회적 지지는 섭식행동, 음주, 흡연, 그리고 정서적 장애와 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Thoits, 1995).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할 뿐, 사회적 지지원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행동인가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그 발생원이나 표현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문제행동에서는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의 감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비행행동의 억제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양돈규, 1997). 또한 사회적 지지는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의미있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데,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고 중요한 사람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Steinberg, 1993),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주는 사람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지지를 받는 청소년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원의 차이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지도나 문제행동 감소와 억제에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1988).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자신의 건강한 신체, 심리 및 행동의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인 및 사회에도 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표현하는 말로 이상행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부적응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말하며, 우울증, 과도한 불안 및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신념 및 가치관 등과 같은 내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과 자살시도, 폭행, 강간 등과 같은 외향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Santrock, 1996). 이처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 혹은 비정상적인 문제는 크게 내향적 장애(internalizing disorders)와 외향적 장애(externalizing disorders)로 구분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7). 내향적 장애란 문제의 특성이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이 명백히 정서적이고 인지적 증상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한다. 반면에 외향적 장애란 문제의 특성이 외향적이고 행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장애를 말하며, 여기에는 청소년기 동안 흔히 발생하는 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다양한 비행행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향적 장애와 외향적 장애는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문제 청소년들 중에는 우울증과 함께 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에 빠져

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andel, Ravies, & Davies, 1991).

내향적 장애의 대표적인 예로 우울을 들 수 있다. 우울은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 동안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장애로(Santrock, 1996), 기분장애, 우울증, 임상적 우울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우울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 덜 친숙하게 느끼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대중이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갖기 보다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사회적 고립의 경향을 보이며, 불안, 공포, 섭식장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Cantwell & Baker, 1991; Kandel, Ravies, & Davies, 1991). 또 우울을 가진 모든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의 우울은 자살 및 자살에 대한 생각과 높은 상관을 갖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알려지고 있다(Man & Leduc, 1995; Pagliaro, 1995). 또한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보인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가서도 유사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Garber, Kriss, Koch, & Lindholm, 1988; Kandel & Davies, 1986), 청소년기의 우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울증의 발생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 가운데 25 - 40%의 여자 청소년들과 15 - 20%의 남자 청소년들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울한 기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Achenbach, Howell, Quay, & Connors, 1991), 비임상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Petersen, Compas, Brooks-Gunn, Stemmler, & Grant, 1993)에서는 약 7%의 청소년들이 심각할 정도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 발생률은 위에 제시된 미국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연령범위 15세 - 22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34.5%가 우울을 경험

하고 있으며, 또한 7분의 1에 해당되는 14%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제시되고 있어(동아일보, 1997년 5월 9일자),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울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Palosaari & Aroo, 1995), 연령, 성별, 가족 구성원들의 우울경력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사건 및 생활환경(Compas, Hinden, & Gerhardt, 1995) 등이 알려지고 있다. 스트레스적인 사건 및 환경요인으로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및 부모갈등, 경제적인 문제, 친구관계가 없거나 적은 것, 친구로부터의 배척 등이 청소년기 우울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또래 및 친구관계가 없거나 적은 경우, 그리고 이들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청소년들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Vernberg, 1990). 이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왕따'가 피해자들에게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춘기의 시작으로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은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변화 혹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울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외향적 장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데, 비행이란 법에 의해 금지된 청소년의 특정 행동을 말한다(Trojanowicz & Morash, 1992).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는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이성과의 불건전한 접촉 또는 성적인 관계

등과 같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위비행에서부터 강도,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이 포함된다. 한편,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이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비행인지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Ketterlinus & Lamb, 1994). 이는 비행행동의 범위와 규정이 시대 및 사회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서 비롯한다.

청소년 비행행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년범죄는 1991년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도에는 1991년도에 비하여 21.2%가 증가함으로써 전체범죄의 증가율(17.7%)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또한 일반 남자 고교생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흡연, 음주,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도박의 경험이 있고, 1/3 이상이 디스코장 출입, 등록금 유용, 폭행, 공공기물 파손, 소액절도, 가벼운 추행 등의 경험을, 1/5 이상이 여성희롱, 금품탈취, 흥기소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송광성, 이종원, 김범준 및 김하연, 1992),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매우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비행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곽금주와 문은영, 1993; 심웅철, 1992). 특히, 연령면에서는 점차 저연령화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발생 경향을 보면, 문제유형에 따라 연령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초기에는 친구간의 논쟁이나 싸움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무단결석, 약물사용 등의 비행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Edelbrock, 1989). 그러나 연령에 따른 약물사용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과거에는 중학생 집단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집단에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 오면서 점차 집단간 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Johnston, O'Malley, & Bachman, 1992), 이점은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 추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행동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크게 개인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인들과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개인적, 심리학적 요인으로서는 개인의 도덕성, 낮은 자아개념(심웅철, 1992; Evans, Levy, Sullenberger, & Vyas, 1991),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신체 이미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낮은 자기통제수준, 청소년기 이전의 비행경험, 성별(특히 남성),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 저조한 학교성적 등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청소년 비행 행동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서는 가족의 결손상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 관계, 사회 경제적 지위, 거주지역의 환경, 그리고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 등을 들 수 있다(Lytton, 1995; Seydltz, 1993).

사회적 지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많은 요인들 가운데, 특히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며, 특히 부모, 친구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사회적 지지란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Cohen & Hoberman, 1983), 최근에 와서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예방과 대처과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등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의 형태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흔히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면,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존경 및 애정 등의 정서적 지지, 정보 및 지식 등의 인지적 지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가시적 지지(tangible suppor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는 존경 및 애정형태의 정서적 지지, 안내 및 지도형태의 지지, 개인의 행위에 대해 반응해 주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형태의 피드백 지지, 사회화 과정 혹은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형태의 지지, 현실생활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는 형태의 실제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모델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완충효과모델(buffering effect model)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원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Dubow et al., 1989). 즉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원과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주효과모델(main effect model)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원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원

과 관계없이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는 주효과-완충효과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이미숙, 1996).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고민의 주요인으로는 주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와 학업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들 수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 및 발달과업들에 대처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나아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나 약물사용, 가출 및 폭력 등의 외현적인 행동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보다 잘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ubow et al.,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영향력이 큰 대상으로 부모, 친구 및 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Varni, Rubenfeld, Talbot, & Setoguchi, 1989; 양돈규, 1997) 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하며, 거식증(Schmidt, 1996) 및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대해 완충효과 또는 주효과를 갖는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원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와 우울 및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원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특징적인 한 시기로, 아동기의 미성숙 상태를 지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Sprinthall, & Collins, 1995; Steinberg, 1993). 이와 같은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아동적인 특징과 성인의 특징 그리고 청소년기만의 특징을 모두 갖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많은 청소년 연구가들은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요인들(예를 들어, 가정, 학교, 친구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Hill, 1983). 따라서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지식, 능력 및 태도 등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한다(Havighurst, 1972).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에게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많은 과업이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의 변화, 발달과업 및 이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나 약물사용, 폭력과 같

은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다(임영식, 1997). 더욱이 이러한 문제행동의 발생은 아동기를 포함한 발달 초기에 비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이 시기 동안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동안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로는 부모, 친구 및 또래 집단, 그리고 학교의 교사를 들 수 있다(Varni, & Setoguchi, 1993).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는 자녀의 인생 초기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에도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주지 않거나 소홀히 할수록 자녀들이 비행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되며(Moran, Chang, & Pettit, 1994; Rosenbaum, 1989), 청소년의 알코올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lina & Chassin, 1996). 또한 정상적인 가정과는 달리, 부모가 서로 심하게 갈등관계에 있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감소를 초래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한 경우, 가정에 긴장감이 높거나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자녀 행동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모니터링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서 청소년 자녀들의 음주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nes, Farrell, & Banerjee, 1995; Peterson et al., 1994). 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우울을 감소시키고(Asarnov & Horton, 1990), 약물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Hughes,

Power, & Francis, 1992), 또한 비행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Lee, 1993).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는 부모 이외에도 급우, 친구 및 교사 등을 들 수 있다(Barrera & Garrieon-Jones, 1992; Varni et al., 1989).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그 이전의 발달시기에 비해 친구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개인시간의 반 이상을 친구들과 보내는 반면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Larson, Kubey, & Colletti, 1989).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모나 다른 성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2배 정도 많다(Brown, 1990).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가는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친구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고(Youniss et al., 1985), 또한 친구들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사회적인 기술을 획득하므로 친구는 청소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함께 하도록 동조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술을 마시라는 압력을 받아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Brown, Clasen, & Eicher, 1986). 동료로부터

터의 이러한 동조 압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Dielman et al., 1992). 이와 같이 친구관계, 특히 비행친구 혹은 비행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김선남, 1994; Lee, 1993)는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Glueck 과 Glueck(1950)이 500명의 비행청소년과 500명의 비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청소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비행친구와의 일상적인 접촉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 가운데서도 특히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비행행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될 지, 아니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 행동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될 지의 여부는 그들이 사귀는 친구 혹은 집단이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가치체계와 행동방식을 수용하는 부류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탈적인 가치가치와 행동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류인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Kearl & Gordon, 1992).

한편, 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행동과 기대는 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Sprinthall & Collins, 199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학업문제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문화방송, 1991). 따라서 교사는 청소년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교사는 청소년기의 비행 및 우울발생의 억제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거

나 부적절할 때, 학교나 교사는 비행 방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antrock, 1996).

한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오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친구 및 또래집단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증가하며(Csikszentmihalyi et al., 1984; Youniss et al., 1985), 또 고학년으로 가면서 교육 및 학교생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의 영향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발달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를 세분하여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 및 청소년 후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초기는 11-14세, 청소년 중기는 15-18세, 그리고 청년기(youth)라고도 불리는 청소년 후기는 18-21세까지로 구분하고 있다(Kagan & Cole, 1972; Keniston, 1970; Lipsitz, 1977). 이처럼 청소년기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각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는 중기 및 후기 청소년기보다 아동기의 특성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 및 대인관계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나 관심, 그리고 친구 및 비행친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비행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도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청소년 비행행동과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시내와 경기지역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전체 1,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비행척도나 우울척도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 48명을 제외한 1,08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중학생은 656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60.35%였으며, 고등학생은 43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9.65%였다.

조사도구

1) 사회적 지지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척도는 한미현(1996)이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 지지척도(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각 8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에서 가족지지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을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문항 10개로 대체하여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척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alpha = .91$ 로 신뢰로운 결과를 얻었다.

2) 비행척도

청소년의 비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심용철(1992)이 Clinard와 Quinney (1973)의 범죄유형 분류와 Sanders(1981)의 청소년 비행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 비행경험에 관한 질문지'(34개 문항으로 구성)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문항(관련법규의 변화로 비행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문항)과 서로 중복되는 일부 문항을 제외한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 '1-2번 있다'(2점), '3-4번 있다'(3점), '5-6번 있다'(4점), '7번 이상 있다'(7점)으로 평가되었다. 척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alpha = .89$ 였다.

3)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실시한 Beck(1967)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증상의 강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증상의 강도에 따라 4개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4개의 진술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우울 정도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로 평가되었다. 척도 문항의 신뢰도계수는 $\alpha = .87$ 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 t-검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표 1은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상관과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세분하여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 변인을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 이러한 회귀모형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083) = 64.474; p < .001$). 이들 예측변인들의 비행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교사지지($\beta = -.315$), 부모지지($\beta = -.180$), 친구지지($\beta =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예측변인들의 비표준화된 베타계수(B)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예측변인의 방향성을 나

표 1. 사회적 지지와 비행행동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전체피험자: 1,087)

지지원	비행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비행	1.000				27.350	3.672
부모	-.255*	1.000			22.641	5.266
교사	-.340*	.371*	1.000		22.450	6.734
친구	-.009	.300*	.301*	1.000	27.481	6.101

* $p < .001$

표 2. 비행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전체 피험자)

지지원	B	β	t	R^2	ΔR^2
교사	-.172	-.315	-10.210*	.115	
부모	-.125	-.180	-5.824*	.134	.019
친구	.084	.140	4.664*	.152	.017
절편	31.725				

* $p < .001$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사지지($B = -.172$), 부모지지($B = -.125$)는 청소년 비행에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친구지지($B = .084$)의 경우는 비행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친구의 지지가 왜 비행행동을 감소시키지 않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라 비행 정도의 차이,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른 비행 정도의 차이, 그리고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과 친구지지가 낮은 집단의 비행 정도를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 중에서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은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행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66.410) = -2.881$; $p < .005$). 또 친구지지의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이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행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t(227.451) = -6.427$; $p < .001$),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비행의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은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상관과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 변인을 단계적 방식으로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결과, 이러한 회귀모형은 청소년 우울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적절하였다($F(3,1053) = 106.907$; $p < .001$). 이들 예측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부모지지($\beta = -.267$), 교사지지($\beta = -.212$), 친구지지($\beta =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지지($B = -.390$), 교사지지($B = -.241$), 친구지지($B = -.209$)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표 2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과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 가설1이 지지되었다. 즉, 청소년 비행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순이었지만, 우울의 경우에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전체 피험자: 1,057)

지지원	우울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우울	1.000				11.973	7.659
부모	-.396*	1.000			22.642	5.247
교사	-.361*	.374*	1.000		22.431	6.718
친구	-.309*	.297*	.298*	1.000	27.516	6.088

* $p < .001$

표 4.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전체 피험자)

지지원	B	β	t	R^2	ΔR^2
부모	-.390	-.267	-8.978*	.157	
교사	-.241	-.212	-7.111*	.209	.053
친구	-.209	-.166	-5.752*	.233	.024
절편	31.970				

* $p < .001$

표 5. 사회적 지지원과 비행행동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중학생 집단: 656)

지지원	비행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비행	1.000				26.555	3.510
부모	-.291*	1.000			23.020	5.532
교사	-.378*	.419*	1.000		22.791	6.761
친구	-.063	.292*	.324*	1.000	27.130	6.254

* $p < .001$

표 6. 비행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중학생 집단)

지지원	B	β	t	R^2	ΔR^2
교사	-.174	-.335	-8.297*	.143	
부모	-.113	-.179	-4.477*	.164	.021
친구	.055	.097	2.546**	.172	.008
절편	31.641				

* $p < .001$ ** $p < .01$

표 5에는 중학생 집단의 비행행동과 사회적 지지원의 상관과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초기 청소년(중학생 집단)의 비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원을 세분하여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 변인을 단계적 방식으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초기 청소년 비행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652) = 45.259$;

$p < .001$). 이들 예측변인들의 초기 청소년기 비행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는 교사지지($\beta = -.335$), 부모지지($\beta = -.179$), 친구지지($\beta = .0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지지($B = -.174$), 부모지지($B = -.113$)는 청소년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친구지지($B = .055$)는 비행행동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적 지지원과 비행행동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고등학생 집단: 431)

지지원	비행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비행	1.000				28.560	3.586
부모	-.156*	1.000			22.065	4.782
교사	-.272*	.278*	1.000		21.930	6.668
친구	.026	.338*	.279*	1.000	28.016	5.827

* $p < .001$

표 8. 비행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고등학생 집단)

지지원	B	β	t	R^2	ΔR^2
교사	-.149	-.277	-5.670*	.074	
친구	.091	.147	2.956**	.085	.011
부모	-.097	-.129	-2.595***	.099	.014
절편	31.424				

* $p < .001$ ** $p < .005$ *** $p < .01$

표 7에는 고등학생 집단의 비행행동과 사회적 지지원의 상관과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중기 청소년기(고등학생 집단)의 비행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표 8 참조)는 교사지지($\beta = -.277$), 친구지지($\beta = .147$), 부모지지($\beta =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에 대한 각 예측변인들의 영향은 교사지지($B = -.149$)와 부모지지($B = -.097$)의 경우에는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친구의 지지($B = .091$)는 비행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중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절하였다($F(3,427) = 15.7$; $p < .001$).

이상의 분석결과, 특히 표 6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서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 간에 차이가 있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교사지지, 친구지지, 부모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에는 중학생 집단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원의 상관과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 청소년(중학생 집단)의 우울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세분하여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 변인을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이러한 회귀모형은 초기 청소년 우울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630) = 88.474$; $p < .001$). 각 예측변인들이 우울을 설명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는 교사지지($\beta = -.270$), 부모지지($\beta = -.260$), 친구지지($\beta = -.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지지($B = -.304$), 부모지지($B = -.356$), 친구지지($B = -.230$)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는 고등학생 집단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원의 상관과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기 청소년(고등학생 집단)의 우울행동을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변인으로 예측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절하였다($F(3,419) = 24.762$; $p < .001$). 이들 예측변인들이 중기 청소년기의 우울을 예측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는 부모지지($\beta = -.250$), 친구

표 9. 사회적 지지원과 우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중학생 집단: 634)

지지원	우 울	부 모	교 사	친 구	평 균	표준편차
우 울	1.000				11.527	7.573
부 모	-.429*	1.000			23.019	5.521
교 사	-.440*	.422*	1.000		22.760	6.727
친 구	-.350	.290*	.317*	1.000	27.180	6.231

* $p < .001$

표 10.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중학생 집단)

지지원	B	β	t	R^2	ΔR^2
교 사	-.304	-.270	-7.150*	.193	
부 모	-.356	-.260	-6.928*	.265	.072
친 구	-.230	-.189	-5.274*	.296	.031
절 편	32.898				

* $p < .001$

표 11. 사회적 지지원과 우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고등학생 집단: 423)

지지원	우울	부모	교사	친구	평균	표준편차
우울	1.000				12.641	7.747
부모	-.333*	1.000			22.078	4.757
교사	-.238*	.285*	1.000		21.936	6.680
친구	-.261	.333*	.280*	1.000	28.019	5.839

* $p < .001$

표 12.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고등학생 집단)

지지원	B	β	t	R^2	ΔR^2
부모	-.407	-.250	-5.118*	.111	
친구	-.188	-.142	-2.906**	.136	.025
교사	-.148	-.127	-2.652***	.151	.014
절편	30.136				

* $p < .001$ ** $p < .005$ *** $p < .01$

지지($\beta = -.142$), 교사지지($\beta =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B = -.407$), 친구지지($B = -.188$), 교사지지($B = -.148$) 모두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표 10과 1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에서 차이가 있어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의 우울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순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 즉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사회적 지지원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내향적인 문제행동과 외향적인 문제행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내향적인 문제행동의 대표적인 예로 우울을, 외향적인 문제행동의 예로 비행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원을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로 세분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행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사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울의 경우에는 비행행동에서와는 달리 교사지지보다는 부모지지가 더욱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나 관심과 같은 지지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비행행동에서 교사의 지지가 가장 예측력이 강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시사해 주고 있

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교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러한 관심과 지지는 비행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동 감소와 억제를 위해 일선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교사들이 학생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분석결과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사회적 지지원들이 청소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Varni, Rubenfeld, Talbot 그리고 Setoguchi(1989)의 연구를 지지하였지만, 비행행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즉, 부모지지, 교사지지는 비행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친구의 지지는 비행행동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개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왜 비행행동을 억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 지지가 높은 집단만을 대상으로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 중에서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은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행행동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66.410) = -2.881; p < .005$), 비행친구가 있는 집단이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에 비해 비행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27.451) = -6.427; p < .001$).

이와 같이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비행행동을 감소시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행행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친구의 지지가 비행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청소년들이 어떤 부류의 친구들과 교류

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의 유형 혹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진다(Bartollas, 1985).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의 비행은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며(Dishion, Patterson, Stoolmiller, & Skinner, 1991), 나아가 비행친구 혹은 비행행동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김신남, 1994; Glueck et al., 1950; Lee, 1993)을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행동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교사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인 경우가 많다. 건전한 사고나 행동을 하는 동료나 교사로부터의 거부나 거절은 이들의 자존심을 저하시키고 반항심을 부추켜 문제행동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동 억제와 감소를 위해, 특히 학교 장면에서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과 주변 친구들의 주의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가적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과 비행행동의 정도를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 $r = .232(p < .01)$ 로서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두 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한 가지 문제행동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행동이론을 지지하고 있으며(Donovan과 Jessor, 1985; Jessor와 Jessor, 1977), 또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은 우울의 위장된 형태라는 정신의 학자들의 견해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논의점은 발달단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과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하위 발달단계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이제 막 청소년기가 시작된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특성은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의 특성과 다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주변의 기대나 요구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과 중기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서는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기에는 교사지지, 친구지지, 부모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행동에 대한 친구의 중요성은 초기에서 중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반면, 부모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짐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즉 초기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교사지지,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순이었지만, 중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행동에 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울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친구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Collins, 1990; Hill & Holmbeck, 1986; Steinberg, 1990; Steinberg & Silverberg, 1986)을 상대적으로 많이 추구하는 중기 청소년들이 초기 청소년보다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반면에, 친구의 영향력은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교육하고 지도할 때, 청소년이 지금 어

떤 발달단계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방식을 택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택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와의 차이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 둘째, 청소년 비행행동과 우울을 사회적 지지라는 한 가지 요인에 국한하여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만족스러운 정도의 설명력은 얻지 못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들이 모두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들로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청소년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다시 하위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실제 조사 및 분석에서는 초기, 중기 청소년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역시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기를 세분하여 각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 차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앞서 밝힌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설명할 때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제한점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박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학회지: 발달,

- 6(2), 29-43.
- 김선남(1994).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동아일보. 1997년 5월 9일자.
- 문화방송국(1991). '91 MBC 청소년백서.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백서.
- 송광성 · 이종원 · 김범준 · 김하연(1992).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1호, 104-119.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미숙(1996).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효과: 주효과와 완충효과의 검증을 위한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 한국사회학, 30집, 449-472.
- 이영호 ·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임영식(1997).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23,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7). *The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Howell, C. T., Quay, H. C., & Conners, C. K. (1991). National survey of problems and competencies among four-to sixteen-year-ol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25(Vol. 56, No. 3)*.
- Asarnov, J. R., & Horton, A. A. (1990). Coping and stress in families of child psychiatric inpatients: Parents of children with depressive and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1*, 145-157.
- Barnes, G. M., Farrell, M. P., & Banerjee, S.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white Americans. In G. M. Boyd, J. Howard, & R. A. Zucker(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Hillsdale, NJ: Erlbaum.
- Barrera, M., & Garieon-Jones, C. (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1-16.
- Bartollas, C. (1985). *Juvenile delinquency*(176-178). Macmillan Publishing Comany.
- Brown, B. (1990). Peer groups. In S. Feldman and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171-19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B., Clasen, D., & Eicher, S.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 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nets. *Development Psychology, 22*, 521-530.
- Cantwell, D., & Baker, L. (1991). Manifestations of depressive affec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121-13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llins, W. A. (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In

- R. Montemayor, G. Adams, and T. Gullotta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2. The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85-106). Hillsdale, Calif.: Sage.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93.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 (1984). *Being adolescent*. New York: Basic Books.
- Dielman, T., Schullenberg, J., Leech, S., & Shope, J. T.(1992). *Reduction of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d alcohol use/misuse through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Donovan, J., & Jessor, R. (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90-904.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cia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delbrock, C. S. (1989). *Self-repor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 Evans, R. C., Levy, L., Sullenberger, T., & Vyas, A. (1991).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The on-going Debat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6(3-4), 59-74.
- Garber, J., Kriss, M. R., Koch, M., & Lindholm, L. (1988). Recurrent depression in adolescent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49-54.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Mckay.
- Hill, J. (1983). Early adolescence: A framework.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21.
- Hill, J., & Holmbeck, G.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G.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Greenwich, Conn.: JAI Press.
- Hughes, S. O., Power, T. G., & Francis, D. J. (1992). *Attachment, autonomy, and adolescent drinking: Differentiating abstainers, experimenters, and heavy us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Washington, DC.
- Jessor, R., & Jessor, S.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t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1992). *The 1991 survey of drug use by America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nn Arbor, MI: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 Kagan, J., & Cole, R. (1972). *Twelve to sixteen: Early adolescence*. New York: Norton.
- Kandel, D. B., & Davies, M. (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ant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andel, D., Ravies, V.,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abuse, and other risk factor. *Jour-*

- 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10.
- Kearl, M., & Gordon, C. (1992).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 Keniston, K. (1970). Youth: A new stage of life. *American Scholar*, 39, 631-641.
- Ketterlinus, R. D., & Lamb, M. E. (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ssues and Re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rson, R., Kubey, R., & Colletti, J. (1989). Changing channels: Early adolescent media choices and shifting investments in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83-600.
- Lee, W. (1993). *Social Resources, Social Networks, and Juvenile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the Strength of 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Lipsitz, J. (1977). *Growing up forgotte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Lyntton, H. (1995). *Child and family predictors of conduct disorder and crimi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an, A. F., & Leduc, C. P. (1995). Suicidal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other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2), 173-181.
- Molina, B. S., & Chassin, L. (1996).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t puberty: Hispanic ethnicity and parent alcoholism as modera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675-686.
- Moran, P., Chang, J., & Pettit, R. (1994).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behavior among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 Pagliaro, L. A. (1995).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Literature.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1(2), 191-201.
- Palosaair, U. K., & Aroo, H. M. (1995). Parental divorce, self-esteem and depression: An intimate relationship as a protective factor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5(3), 91-96.
- Pe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Petersen, A. C., Compas, B. E., Brooks-Gunn, J., Stemmler, M., Ey, S., & Grant, K. E. (1993). Depression in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48, 155-168.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Coping with adolescence. In M. E. Colte & S. Gore (Eds.), *Adolescent stress: Cause and consequenc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etersen, P. L.,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1994).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arents drinking, family, management, and parental alcohol norms on current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203-228.
- Rosenbaum, J. L. (1989). Family dysfunction and female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35, 31-44.
- Santrock, J. W. (1996). *Adolescence* (6th ed.); An introduction. Brown & Benchmark.
- Schmidt, S. B. (1996). *Adolescent Bulimic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Adolescent Development*,

- Coping,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Alameda.
- Seydlitz, R. (1993). Complex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direct and indirect parental controls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4, 243-275.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3rd ed.). McGraw-Hill, Inc.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Feldman and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ment adloescent*(255-276).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3rd ed.). McGraw-Hill, Inc.
- Steinberg, L., & Silverberg, S.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hoits, P. A. (1982).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41-362.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s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 Trojanowicz, R. C., & Morash, M. (1992). *Juvenile delinquency*. p.3. Prentice Hall.
- Varni, J. W., & Setoguchi, Y. (1993). Effects of Parental Adjustment on the Adaptation of Children with Congenital or 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4(1), 13-20.
- Varni, J. W., Rubinfeld, L. A., Talbot, D., & Setoguchi, Y. (1989). Determinants of Self-Esteem in Children with Cogenital/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0(1), 13-16.
- Vernberg, E. M. (1990).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experience with peers during early adolescence: Reciprocal, incidental, or unidirec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187-198.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Don Kyou Yang¹ and Young Sik Lim²

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² Department of Adolescen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and depressi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35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Kyunggi-Do area.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social support scale, delinquency scale, and depression inventor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ree different social supporters(parent, teacher, peer) on the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hree different supporters on the depression. In the case of adolescent's delinquency,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was teacher's support, on the other hand, the parent's support was the most predictable variable in the case of the depression. Comparing the early adolescence with the middle adolescenc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hree different supporters on the delinquent behavior and depression found to be different. In the early adolescence, delinquent behavior was predicted, in order of importance, by the teacher's support, parent's support, and peer's support. However, in the middle adolescence, the order was teacher's support, peer's support, and parent's support. In the case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the order of predictability was parent's support, teacher's support, and peer's support, but in the case of middle adolescent's depression, the order was parent's support, peer's support, and teacher's support.